http://dx.doi.org/10.14400/JDC.2014.12.2.69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의 세부요인 분석
– 세대와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안정임*, 서윤경**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An Analysis of Sub-factors of Digital Media Literacy Divide: Focusing on the effects of generation and economic status

Jung Im Ahn*, Youn Kyung Seo**
School of Communications,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ion School of Educ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의 현황과 원인을 리터러시의 세부요인을 중심으로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세대와 경제수준 변인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요인별로 어떠한 격차를 발생시키는지를 실증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고연령층에 이르는 미디어 이용자 총 2,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대간 집단 차이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8개 세부요인에 따라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경제수준 역시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세대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성인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격차, 세대 차이,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미디어 교육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causes of digital media literacy divide according to its sub-factors. The effects of the generation and the economic status, among other variables, have been explored using empirical data from a large-scale survey of 2,171 media users including children,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generation and economic status varied according to 8 components of digital media literacy. The economic status of media users has also been found to influence the divide among adults group and through the interaction effect with the generation factor. Policy suggestions for the solution of digital media literacy divide were discussed in conclusion.

Key Words : Digital Media Literacy, Digital Divide, Generation Gap, Media Literacy Policy, Media Education

1. 서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삶의 편의성이 확대되었다 면,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 이용의 불평등으로 인한 '디지털 격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Received 2 January 2014, Revised 2 February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Jung Im Ahn(Seoul Women's University)
Email: jiahn@s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차'가 심화된 것이다. 초기 인터넷 미디어의 기기적 접근에서 출발한 정보격차의 문제는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격차, 모바일 격차, 스마트 격차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디지털 정보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구조적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해결이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1990년대 초기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온 정보 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미디어 기기 보급이나 기술이용교육 등으로 해결 가능한 '접근(access)'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미디어 이용의 다양한 층위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명되고 있다[1].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일반인들의 미디어 이용기술과 능력이 보편화되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던 디지털 격차는 미디어의 질적 활용, 참여와 소통, 창조와 생산 등 다양한 이용의 측면으로 오히려 확대되었고 이로 인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구자들은 1차적 격차로서의 접근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나타나는 2차적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자의 질적 미디어 활용, 참여와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탐색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2].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비판적 해독, 창의적 표현, 그리고 참여와 소통을 아우르는 다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3].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정책 혹은 연구들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5][6].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격차의 일차적 원인으로 밝혀졌던 세대, 경제수준,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의 방안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과 분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순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렵다[7].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는 이전 미디어와는 달리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미디어 이용행위 역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 및 정책 관련기관들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세부 구성요인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8].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용자에 따라 리터러시 하위영역별로 상이한 능력을 보이며, 동일 집단 내에서도 하위영역별로 리터러시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미디어 이용기술에 능숙한 이용자가 반드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며, 같은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리터러시 격차는 발생하고, 노인계층이라고 해서 모든 리터러시 영역에서 젊은 세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격차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세부요인별 분석을 통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요인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정보 격차의 일차적 원인으로 규명되어온 세대와 경제수준의 집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영역별 격차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2.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인과 디지털 격차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 자체가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 "개인의 정보 관심, 욕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인식, 검색, 평가, 조직하는 능력, 그리고 이슈를 검토하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창조, 활용, 소통하는 능력을 포함한다"[1].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인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영국 방송통신위원회 Ofcom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접근, 이해, 창조'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3], 미국의 미디어교육학회(NAMLE: 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에서는 '접근, 분석, 평가, 소통'으로 정의하였고,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도 이와 유사하게 '기술적 차원, 해독과 이해, 생산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간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네트워킹, 시민적 참여의 측면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크게 대두되었다. Livingstone[9]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적극적 시민의식, 그리고 지식경제에 대한 능력의 제고가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국가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산하 시청자 권익 위원회(EAVI: 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술적 활용, 비판적 이해역량,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분류하고 이 중 커뮤니케이션 능력 영역에 미디어 상의 사회적 관계, 시민적 참여,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세부요인으로 포함시켰다[4].

국내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황용석, 박남수, 이현주, 박남수, 이원태[5]는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체계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시민주의 능력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러한 능력의 계발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데 필수적임을 제안하였다.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7]는 기회, 능력, 시민성의 세 가지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성은 이전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해, 표현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제는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킹, 소통, 나아가 시민적 참여까지 포괄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디지털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디지털 미디어를 양적, 질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사회적 소통과 참여로 확대되지 못한다면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 격차'를 주장한 Hargittai와 Walejko[10]는 정보 생산과 공유활동의 격차가 디지털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민영[6]은 참여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정보생산자로서의 관여뿐 아니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회적, 정치적 연계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디지털 격차의 양상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다양한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격차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미디어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의 차원에서 벗어나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형성 및 참여의 차원에서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디지털 격차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격차 지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의 원인을 규명해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작업은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2 디지털 격차의 원인

지금까지 정보격차 연구의 상당부분은 격차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었다.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분석은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목되어온 격차의 원인은 세대, 경제수준, 성별, 교육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다. 이는 초기 격차 연구에서부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격차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원인은 세대와 경제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기술은 연령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콘텐츠 생산 및 표현의 영역에서 특히 젊은 세대와 고연령층 간의 격차가 높다는 것이 공통된 연구 결과이다[11]. 황용석 등[5]의 연구에서는 특히 연령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격차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면서, 미디어 활용 영역에 따라 세대 간 격차가 다른 패턴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를 관계를 분석한 민영[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기존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활용성 측면에서는 불균등한 구조를 나타냈다. 특히 연령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물리적, 혹은 환경적으로 접근성이 확보되더라도 높은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은 그 범위나 깊이에서 젊은 층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상대적 결핍이 성별, 교육, 소득 수준의 효과와 별개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격차의 원인 중 경제수준 역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초기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기기에 대한 접근의 유무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접근기회를 가진 자(haves)와 갖지 못한 자(have-nots)의 이분법적 시각이 존재하였다[2]. 이러한 시각은 디지털 격차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개인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1].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미디어 이용의 경제적 지불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격차의 원인으로서 경제수준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장근영[12]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일관된 정책 시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인당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개인의 경제수준의 격차는 이제 미디어 이용의 인프라 구축 차원이 아니라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수준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는 동일한 연령집단 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디지털 네이티브로 일컬어지는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부모의 경제수준, 본인방에 컴퓨터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13]. 이는 곧 디지털 격차를 설명하는 원인으로서의 세대와 경제수준 간의 상호작용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하위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요인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되, 세대와 경제수준의 집단별로 격차의 양상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미디어 이용자의 세대 집단간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요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 미디어 이용자의 경제수준 집단간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요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 미디어 이용자의 세대와 경제수준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요인별로 어떠한 상호작용적 영향력을 보이는가?

3. 연구 방법

3.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자 중 연령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고연령층의 총 2,171명을 대상으로 전국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는 초등학교 5~6학년,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은 20대부터 50대까지, 고연령층은 6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상 조사 방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과 고연령층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지역 및 경제수준을 고려한 임의 추출 방식으로 학교를 선정하여 그 중 일부 학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학급의 전수 조사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2013년 7월12일~7월17일)를 실시하였다. 성인 및 고연령층 조사는 전국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비례할당을 실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2013년 9월2일~9월17일)로 진행하였다.

세대별 집단구성과 함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경제수준별 집단구분을 위해 설문조사 내용 중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성인과 고연령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경제수준 상, 중,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구별 월 평균 소득을 분명하게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답자 스스로 판단하는 경제수준을 10단계로 나누고 이 중 1~4단계는 하층, 5~6단계는 중층, 7~10단계는 상층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s of survey respondents

Categories		No.	%
gender	male	1,159	53.4
	female	1,012	46.6
generation	children(5th~6th grade)	294	13.5
	adolescents(8th, 11th grade)	677	31.2
	adults(20s~50s)	1,114	51.3
	elderly(60s)	86	4.0
economic status	upper	414	19.1
	middle	828	38.2
	lower	924	42.7
total		2,171	100.0

3.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요인의 측정을 위해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8]가 개발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평가도구'의 측정항목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실증적 평가도구 개발 연구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4개 목표, 8개 하위영역, 72개 측정항목으로 제시하였다. 8개 하위영역은 구체적으로 미디어 이용기술, 미디어 속성이해, 미디어 정보평가, 미디어 이용윤리, 표현능력, 표현기술, 소통과 공유, 시민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요인으로 채택하고 구체적 설문항목들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세부요인의 정의 및 요인별 측정항목 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방식은 해당 요인과 관련된 질문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세부요인별 측정항목의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산출한 결과, .761~.929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 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도구가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세부요인간 상관계수는 -.356에서부터 .782까지로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finition of digital media literacy components and reliablity of measurement

Categories	to Definition	No of Questions	Cronbach alpha
media use skills	competence to use digital media for information, entertainment, communication in daily life	13	.874
critical understanding of media	competence to understand media industry, consumerism, constructed reality of media contents and changing roles of media users	11	.866
evaluation of media information	competence to understand diversity of media message according to types and channels of media and to evaluate them properly	8	.761
ethics of media use	competence to utilize media legally and ethically, an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11	.909
self-expression efficacy	competence to utilize media for the expression of one's own stories and opinions	6	.929
self-expression skills	competence to create media contents by planning, shooting and editing	9	.904
communication	competence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and to utilize actively for communication	5	.902
citizenship	competence to participate in social issues actively, and to consider others	9	.923

4. 연구 결과

4.1 세대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세대 집단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격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8개 세부요인별로 각 세대별 평균 점수를 ANOVA 및 Scheffe 사후검증 방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of sub-factors of digital media literacy by generation

genetation / category	children (1)		adolescents (2)		adults (3)		elderly (4)		F
	M	SD	M	SD	M	SD	M	SD	
media use skills	2.63 (2,3,4)	.75	2.98 (1,3)	.64	3.61 (1,2,4)	.74	3.12 (1,3)	.86	199.798***
critical understanding of media	3.38 (2,3,4)	.71	3.80 (1)	.64	3.87 (1)	.50	3.73 (1)	.50	57.287***
evaluation of media information	-	-	3.26 (3,4)	.49	3.53 (2)	.51	3.50 (2)	.46	41.486***
ethics of media use	4.62 (2,3)	.43	4.25 (1,4)	.66	4.31 (1,4)	.79	4.56 (2,3)	.62	23.320***
self-expression efficacy	2.63 (2,3)	1.14	2.86 (1,3)	.92	3.12 (1,2)	.81	2.75 (3)	.90	29.656***
self-expression skills	3.34 (2,4)	.96	3.76 (1,3,4)	.78	3.42 (2,4)	.83	2.79 (1,2,3)	.87	49.374***
communication	2.32 (2,3)	1.08	2.57 (1,3,4)	1.01	2.80 (1,2,4)	.88	2.23 (2,3)	.92	27.767***
citizenship	2.10 (2,3)	.89	2.34 (1,3)	.85	2.79 (1,2,4)	.79	2.36 (3)	.85	74.431***
total	3.17 (2,3)	.47	3.32 (1,3)	.39	3.54 (1,2,4)	.40	3.27 (3)	.41	85.380***

* p<.05, ** p<.01, *** p<.001
※ M(평균)의 ( )안 숫자는 Scheffe 사후검증결과 그 집단이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표시

분석결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체수준뿐 아니라 모든 세부요인별로 세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요인에 따라서 세대별 평균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성인 집단의 리터러시 요인별 평균이 높은 편이며, 어린이 집단과 고연령층 집단의 평균은 낮은 편이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 중 세대 집단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은 미디어 이용기술 요인이었다. 미디어 이용기술 평균은 성인이 가장 높고 고연령층, 청소년, 어린이의 순서로 나타났다(F=199.796, p<.001). 성인 집단의 미디어 이용기술은 다른 집단 모두와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어린이 집단은 미디어 속성이해 수준에서도 격차 하위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F=57.287, p<.001). 반면, 미디어 이용윤리 수준에서는 오히려 어린이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고연령층, 성인, 청소년의 순서로 나타났다(F=23.320, p<.001). 미디어 이용윤리 수준에서 어린이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디어 이용행태에 있어서 동일한 세대로 분류해온 데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청소년 집단은 미디어 정보평가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M=3.26, SD=.49).[1] 사후검증 결과 청소년 집단은 성인이나 고연령층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41.486, p<.001), 단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사고력을 요하는 정보평가 영역에서 성인이나 고연령층과 청소년 집단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에 의한 차이인지, 교육의 영향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린이 집단과 청소년 집단은 다른 세대 집단에 비해 표현능력 평균은 낮은 편이나 표현기술 평균은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 집단은 표현능력과 표현기술 요인에서 평균이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어떤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인지를 추측해볼 수 있다.

고연령층 집단은 소통과 공유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는데, 앞서 진단한 바와 같이 고연령층에 대한 전반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어린이 집단의 경우에도 소통과 공유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를 측정하는 시민성 요인에서는 성인 집단의 평균이 다른 세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2.79, SD=.79). 이는 실제 사회 참여가 가능한 세대가 성인 세대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4.2 경제수준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그렇다면 경제수준별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요인별 경제수준 집단

1) 미디어 정보평가 요인은 개념의 난이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집단에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간의 차이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로 경제수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 이용윤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부요인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 집단 간에 리터러시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난 요인들은 미디어 이용기술, 미디어 정보평가, 표현기술 등인데, 이 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고 무언가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능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해서 실제 이용하는 수준도 유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Table 4〉 Analysis of sub-factors of digital media literacy by economic status

economic status / category	upper(1)		middle(2)		lower(3)		F
	M	SD	M	SD	M	SD	
media use skills	3.37 (3)	0.87	3.27	0.82	3.21 (1)	0.76	5.271**
critical understanding of media	3.78	0.65	3.79	0.58	3.77	0.59	n.s
evaluation of media information	3.57 (3)	0.54	3.50 (3)	0.49	3.39 (1,2)	0.53	13.975***
ethics of media use	4.31	0.80	4.37	0.70	4.34	0.70	n.s
self-expression efficacy	3.04 (3)	0.99	2.99	0.93	2.90 (1)	0.86	4.328*
self-expression skills	3.60 (3)	0.89	3.56 (3)	0.81	3.39 (1,2)	0.88	12.356***
communication	2.75	1.04	2.62	0.95	2.63	0.95	n.s
citizenship	2.66 (2,3)	0.94	2.51 (1)	0.88	2.52 (1)	0.82	4.855**

* p<.05, ** p<.01, *** p<.001, n.s (non significanc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기술 요인에서 경제수준 상 집단은 하 집단보다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271, p<.01). 집단 간의 편차가 가장 큰 리터러시 요인은 미디어 정보평가 요인이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 정보평가 수준도 높아졌는데, 특히 경제수준 하 집단은 경제수준 상 혹은 중 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F=13.975, p<.001).

반면, 미디어 속성 이해나 미디어 이용윤리 요인에서는 경제수준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로 지식이나 인식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기기나 프로그램 이용 수준이 포함된 미디어 이용기술, 표현 능력 또는 표현 기술 요인은 경제수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과 대조하여 볼 때 경제수준 집단 간에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다.

시민성 요인에서는 경제수준 상 집단이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4.3 세대와 경제수준간 상호작용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세대와 경제수준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격차가 상호작용을 통해 차별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세대 집단별로 다시 경제수준으로 인한 격차 여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세대에 따라 경제수준의 영향력은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2] 전체적으로 경제수준으로 인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요인별 격차는 성인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 고연령층 집단에 있어서 경제수준은 리터러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집단의 경우, 표현기술 요인에서만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578, p<.01). 청소년 집단은 소통과 공유(F=3.622, p<.05), 시민성 요인(F=3.713, p<.05)에서만 경제수준에 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경제수준에 의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성인 집단의 경우에는 미디어 속성이해와 미디어 이용윤리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요인 모두에서 경제수준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별히 경제수준 하위집단이 상과 중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리터러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세부요인의 통계치는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Table 5〉 Analysis of sub-factors of digital media literacy by interaction b/t generation and economic status

gen. \ economic status / category		upper(1)		middle(2)		lower(3)		F
		M	SD	M	SD	M	SD	
Childr en	self-expression skills	3.54 (3)	.94	3.41 (3)	.88	3.07 (1,2)	1.01	5.578**
Adole scent	critical understanding of media	2.69	1.01	2.45 (1)	.98	2.66 (2)	1.03	3.622*
	citizenship	2.53 (2)	.95	2.25 (3)	.86	2.38	.82	3.713*
Adults	media use skills	3.76 (3)	.74	3.71 (3)	.70	3.45 (1,2)	.74	19.890***
	evaluation of media information	3.64 (3)	.53	3.57 (3)	.48	3.45 (1,2)	.52	12.574***
	self-expression efficacy	3.24 (3)	.84	3.20 (3)	.80	3.00 (1,2)	.79	9.674***
	self-expression skills	3.57 (3)	.85	3.49 (3)	.74	3.29 (1,2)	.87	10.971***
	communication	2.98 (3)	.93	2.84 (3)	.83	2.69 (1,2)	.87	8.853***
	citizenship	2.96 (3)	.83	2.83 (3)	.78	2.67 (1,2)	.78	11.026***

* p<.05, ** p<.01, *** p<.001

이상의 결과는 경제수준에 의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가 성인 집단의 격차에 의한 결과임을 증명해준다. 즉 소득수준이 높고, 이로 인한 디지털 미디어 구매력 및 이용지불능력이 높은 성인 이용자들 간에 리터러시 격차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어린이나 청소년,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가 높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일반적 예상과는 상이한 결과로 새롭게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정책 방안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세대간, 경제수준간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리터러시 세부요인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초중고생 971명과 20대에서 60대까지 1,200명 등 총 2,1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의 현황은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축약해볼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의 최하위집단은 어린이집단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청소년, 성인, 고연령층 모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어린이들은 미디어 이용기술을 비롯하여 표현과 소통, 시민성 등 거의 모든 세부요인에서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고학년부터 청소년까지를 디지털 세대로 규정해온 일반적 인식과 상반된다.

둘째, 청소년 집단의 리터러시 수준 역시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그리 높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요인은 표현기술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콘텐츠로 표현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대부분 고연령층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요인은 미디어 이용윤리로 불법다운로드, 악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비윤리적 행위의 비율이 다른 세대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는 어린이집단의 미디어 이용윤리 점수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크게 대조된다. 같은 10대로 분류되지만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세대는 거의 모든 리터러시 세부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디지털 격차 상위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단, 미디어 이용윤리 영역에서는 청소년집단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점이 흥미를 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와 함께 미디어 이용이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질수록 미디어 윤리와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넷째, 고연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디지털 격차의 최하위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이 노년층인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집단의 리터러시 수준이 리터러시 세부요인 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60대 미디어 이용자들은 미디어 속성이해, 정보 평가, 이용 윤리 측면에서는 청소년 수준의 비교적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보인 반면, 표현기술이나 소통과 공유 측면에서는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이라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모든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 세부요인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입장을 뒷받침해준다.

다섯째, 경제수준은 예상대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나누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경제수준 상위집단은 미디어 이용기술, 정보평가, 표현능력과 표현기술, 시민성의 영역에서 모두 높은 리터러시 수준을 보였다. 이 요인들은 대부분 미디어 기술의 이용과 활용과 연관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 반면, 미디어 속성이해, 이용윤리 등과 같은 인식차원의 리터러시에서는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경제수준으로 인한 격차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의 소유 여부 및 활용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수준이 높은 이용자들은 고가의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리터러시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수준 집단간 리터러시 격차는 세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대와 경제수준 변인 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경제수준은 어린이, 청소년, 고연령층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반면, 성인집단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 발생요인임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이 높은 성인집단은 미디어 속성이해와 이용윤리 영역을 제외한 전체 리터러시 영역에서 일관되게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제수준 변인으로 인한 격차는 성인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2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시해준다.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능숙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현황은 사뭇 달랐다. 이는 Hargittai[14]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및 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이용윤리 교육은 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성인집단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량이 많고 숙련도가 높을수록, 또한 미디어를 이용한 자기표현 능력과 기술이 높을수록 미디어 윤리 및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현장에서는 미디어 기술 교육 및 자기표현 교육이 주류를 이루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수강생들이 미디어 윤리를 위반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제작기술, 표현교육 프로그램에 미디어 윤리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미디어 이용윤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미디어 이용윤리도 매우 중요하다. 즉 자기정보보호, 이용 안정성 등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연령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기표현 기술이나 소통과 공유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한 미디어 이용기술이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등의 일반 교육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이를 타인들과 공유하는 소통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인을 제외한 여타의 집단, 즉 어린이와 청소년, 고연령층 등에서는 경제수준으로 인한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고연령층이나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기기 보급 및 이용기술 관련 교육을 해왔던 것이 과연 효율적이었는지를 반문하게 한다. 이들 집단의 경우는 경제수준으로 인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자체의 특성,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리터러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기기 보급 혹은 이용기술 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요구나 구체적인 수준에 따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special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13)

REFERENCES

[1] Ahn, J., Digital divide and digital literacy on the perspective of audience welfar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Vol. 36, 78-108, 2006.

[2] Kim, M., & Kim, J., Digital Divide: Conceptu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36, No. 4, 123-155, 2002.

[3] Buckingham, D., Beyond technology: Re-thinking learning in the age of digital culture, In J. Petersen (ed.). Youth, Media, Democracy: Perceptions of New Literacies, 36-42, Dublin: Dublin Institute of Technology, 2009.

[4] EAVI,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final report, 2011.

[5] Hwang, Y., Park, N., Lee, H., & Lee, W., Exploring digital literacy in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generation gap,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56, No. 2, 198-225, 2012.

[6] Min, Y., The digital divide among internet user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48, No. 1, pp.150-187, 2011.

[7] Ahn, J., Seo, Y., & Kim, S., A Study on the Generation Gap in Media Literacy Awareness in Social Media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6, No. 6, 129-176, 2012.

[8] Ahn, J., Seo, Y., & Kim, S., Development of Assessment Instrument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3.

[9] Livingstone, S., Internet literacy: Young people's negotiation of new online opportunities. In T. McPherson (ed.), Digital Youth, Innovation, and the Unexpected. Cambridge, UK: Polity Press, 2008.

[10] Hargittai, E., & Walejko, G., The participation divide: Content creation and sharing in the digital ag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11, No. 2, 239-256, 2008.

[11] Jones, S., & Fox, S., Generation online in 2009,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12] Jang, G.,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divide and generation gap, Korea Local Information & Developmental Institute, Vol. 65, 8-11, 2010.

[13] Jung, J., Kim, Y., Lin, W., & Cheong, P., The influence of social environment on internet connectedness of adolescents in Seoul, Singapore and Taipei, New Media & Society, Vol. 7, No. 1, 64-88, 2005.

[14] Hargittai, E., Digital na(t)ives? Variation in internet skills and uses among members of the "net generation", Sociological Inquiry, Vol. 80, No. 1, 92-113, 2010.

안 정 임(Ahn, Jung Im)

- 1982년 2월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 1985년 2월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1992년 5월 : 美 남일리노이주립대 언론학(박사)
- 1998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미디어 교육, 미디어 이용자, 미디어 심리학
- E-Mail : jiahn@swu.ac.kr

서 윤 경(Seo, Youn Kyung)

- 1995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이학사)
- 1998년 6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교육공학 석사)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교육공학 박사)
- 2006년 9월~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 관심분야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방법
- E-Mail : yunks@swu.ac.kr